**왕상0301 Note**

**궤가 있었던 여호와의 임시 장막의 위치는 다윗성 안인가, 밖인가?**

솔로몬은 애굽왕 파라오의 딸은 이방여인으로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는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한 집을 따로 지어야 했습니다,

한데, 다음의 말씀들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삼하0612. 그리고 이것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니라, 말하되, 하나님의 궤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벧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하는 모두를 축복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벧에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城)으로 기쁨으로써 가지고 올라오니라,

삼하0616.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파자즈:(정련하는 것처럼)응고시키다,(사지가 떨어져 나가듯이)솟구치다,도약하다,강하게 되다] 춤추는 것을 보니라, 그리고 그녀가 그를 그녀의 마음 안에서 멸시하니라,

삼하1525. 그리고 왕이 사독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城)으로 옮기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셔서, 내게 그것과 그분의 거처를 보여주실 것이니라,

그런데, 다음의 말씀들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왕상0301. 그리고 솔로몬이 애굽 왕 파라오와 인척관계를 맺어[하탄:결혼시 딸을 넘겨주다,결혼으로 친척이 되다,시아버지,혼인하다,시어머니,사위], 파라오의 딸을 취하고, 그가 그 자신의 집과 여호와의 집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기를 마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으로 들이니라,

대하0811. 그리고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다윗성에서 그가 그녀를 위해 지은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니라, 이는 그가 말하였음이라, 내 아내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집에서 거하지 못하노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왔었던 곳들은 거룩함이라,

왕상0924. 파라오의 딸이 다윗성에서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 지었던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후에 그가 밀로(밀로:성벽,성채)를 세우니라,

다음의 말씀들은 다윗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여호와의 궤가 장막 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삼하0702.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말하니라, 이제 보소서, 나는 백향목(에레즈: 백향목 나무)의 집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예리아:(흔들리는 것으로서의)휘장, 막(幕) 곧 앙장(仰帳)]들 안에서 거하나이다,

삼하1529.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머무니라,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로 옮겨졌지만, 다윗성 안에 있지는 않았으며,

다윗이 다윗성 인근에 따로 준비해 두었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삼하0617.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와서, 그것을 그분의 자리에, 다윗이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던 장막의 가운데에 놓으니라,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올리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등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성 밖에서 따로 “올라가야(제사를 드리니라)” 하였습니다,

삼하1524. 그리고 보라, 사독과 모든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혈약궤를 나르면서, 그와 함께 또한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으니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성에서 지나가기를 마칠 때까지, 아비아달이 올라가니라[알라:(그가)오르다,높다,(그가) 올라가다,일어나다,오르다,오르게 하다,깨어나다,날이 새다,가져오다,기르다,타다,타게 하다,실어 올리다,던져 올리다,(산에)오르다,오다,오게 하다,밝아지다,출발하다,높이다,들고 오다,일어나다,가다,가게 하다,올라가다,자라다,증가하다,눕히다,거두어들이다,들어올리다,지불하게 하다,완성하다,두다,입다,일으키다,회복하다,일어나게 하다,사다리로 오르다,세우다,솟아나다,

나르다,일하다] ,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있었다고 말하는 윗의 말씀들은, 예루살렘 인근의 구체적인 장막의 처소를 편의상 다윗성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성막은 제사장 사독이 섬기던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대상1639. 그리고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바마:고지,높은 곳,높이,파도)의 여호와의 장막 앞에는,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물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또 여호와의 토라(토라:법칙,법령,특히 십계명,오경,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행하기 위하여,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을 남겨두니라,

대상2129.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바마:고지,높은 곳,높이,파도)에 있었음이라,